

교육현장의 변화 실리와 감성사이에서 떠도는 아이들

허 희 원*

차 례

- I. 들어가며
- II. 교육의 본질과 관련하여
- III. 평가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 IV. 학생 입장에서의 변화
- V. 교사 입장에서의 변화
- VI. 재정투자와 고 2·3학년 음악교과 신설. 음악교과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인가?
- VII. 제 언
- VIII. 마치며

I. 들어가며

2009학년도부터 음악, 미술, 체육 교과의 평가방식이 9등급 상대평가에서 3등급 절대 평가로 바뀐다. 혹자는 예체능 교과의 본질을 살리는 평가방식의

* 창문여자고등학교 음악교사

전환이라고 하고 혹자는 예체능 교과와 위기라 말한다.

교육현장에 있는 음악교사로서 그 변화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준비가 필요하다면 무엇인지? 학생과 교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음악교육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에 관심을 갖고 작은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올 초부터 언론을 통해 예체능 교과와 관련된 개정 교육과정안(고 2·3학년 음악·미술선택 과목군 신설)과 예체능 평가 개정안이 언급되더니 6월 8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중등학교 체육·예술교과 학습발달상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 토론회와 6월 13일 “체육·예술교육 내실화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교육 비전 제시”라는 제목의 교육부 보도 발표가 있었고 7월 초 각 학교로 예체능 과목 평가 변경에 대한 훈령개정 공문이 내려왔다.

교사로서 변화를 느낀 것은 주로 언론이었다. 언론을 통해 들리는 2·3학년 음악·미술 선택 과목군의 신설은 과목시수가 늘었다는 반가움을, 3등급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은 평가가 약화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입시를 앞둔 2·3학년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짜야 할 것인가로 여러 생각거리들을 던져주고 있었다. 교무부에서 보내주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이란 문서는 좀 더 구체적인 변화와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위로부터의 변화, 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힘없는 교사로서의 무력감. 학교현장에서 예체능 교과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나 민원이 쏟아져 나오는 상태도 아니었다. 이 변화는 단기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 졌다.

예체능 평가의 개선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장에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평가 개선과 이번 변화는 매우 큰 차이를 지닌다. 문제의 극복과 원론적인 부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번 평가 개선안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실용주의 시선과 교육의 문제를 예체능 교과와 연관시키는 비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우리가 지도하는 학생의 시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2007년도 교육부 보도 자료에서 나타나는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과 문화적 창의성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 투자

둘째, 체육·예술교과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내신활용성을 고려한 평가 기록 방식 개선

셋째, 고등학교 선택과목군 증대를 통한 체육, 예술교과 이수 시간 및 선택 기회 확대

특히 두 번째 ‘평가 기록 방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되었던 토론회 자료나 한국교육개발원의 “체육·예술 교과 평가 방법 개선 방안 연구(2007)”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근거 자료들의 논리들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예상되는 변화들을 가늠해 보자.

Ⅱ. 교육의 본질과 관련하여

1. 음악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 될 것인가?

음악교과는 음악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심미안과 활동 속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중요시한다. 특히 학교현장은 음악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교양인 육성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평가는 교육적 기능과 서열화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재 음악교과는 어떤 교과보다도 입시와 관련이 적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적 기능과 입시를 위한 서열화 기능의 요구가 적절하게 혼합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3등급 절대 평가와 병행되는 서술형 평가는 논리상으로는 음악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평가방식이고 현재 운영되는 9등급 상대평가는 서열화 기능을 강조하는 평가방식이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논리와 현실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교실 수업에서 교과의 교육적 기능이 서열화 기능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떤 교과도 우리 앞에 놓인 입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말해 어떤 교과도 입시 앞에서 교육적 기능을 서열화 기능보다 앞에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수능의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은 점점 주변의 교과목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과목들의 소외현상 속에서도 음악, 미술, 체육은 교과가 지닌 감성과 교과의 내재적 가치로 과목의 학습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입시를 떠나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기 좋은 교과인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입시에서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교과는 교과의 본질이 추구되는 수업이 아닌 소외된 수업이 되어 버린다. 음악의 본질을 살리는 교과로 만들고자 한다면 평가를 건드리기 전에 음악실 환경 개선, 교사 재교육 등 실제적인 현장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인 농치는 부분 중 하나가 학교와 사회의 예술교육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예술 교육은 학교안과 밖의 교육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때 이뤄진다. 학교 밖의 예술교육은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를 보여주고 학교 안의 예술 교육은 생활수준을 넘어서 균형잡힌 문화교육의 힘을 보여준다.

일상 안에서 힘들게 시간을 쪼개서 음악을 배우는 것이 아닌 편하게 음악을 배우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 밖에서, 또는 학교 활동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음악의 기초 능력을 갖추는 것이 쉬워야 한다.

이는 생활의 여유와 입시에서의 자유로움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 취미로 음악을 배우는 학생은 매우 소수이다. 자신의 공부시간에 틈틈히 짬을 내 배운다. 외국처럼 음악을 배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지역문화강좌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기본 뼈대가 약한 우리의 현실에서 미국학교의 이수, 미이수의 개념과 유사한 3등급 절대평가의 도입으로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큰 기대가 아닐런지?

2.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를 예방할 것인가?

현재 고3학생부터 도입한 내신등급제로 2005학년부터 모든 교과 선생님에게 주어진 임무는 표준점수를 높이는 것이었다(현재 생활기록부에는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급이 기재된다). 평균점수를 내리고 하위권과 상위권의 분

포를 적게 한 이상적인 분포를 만들어 다른 학교 학생보다 좋은 표준점수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내신등급제가 도입되기 전인 ‘수, 우, 미, 양, 가’의 절대 평가 시절. 예체능 교과외의 경우 기본점수제(최하점수 주어진 점수의 60%~70%)가 있었고 보통의 학생은 수나 우, 성적이 나쁜 학생이 미나 양의 등급을 받았다. 이 시절 예체능 교사들은 평가기준들 사이의 점수차를 최소화 하여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고자 노력했다.

전 교과에서 성적 부풀리기의 폐해가 나타났고 이를 보완하고자 현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체능 교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과 교사들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의 과도기를 거치게 된다. 쉬운 문제 출제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어렵고 많은 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체능 교과는 기본점수와 실기와 이론시험이 병행되기 때문에 다른 교과보다 표준점수를 관리하는 것이 쉬웠다. 단, 교과의 비중을 고려하여 이론시험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다른 교과보다 평균점수는 올라가게 된다.

이런 예체능 교과를 실제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학교가 매우 적다. 입시에 반영되더라도 성적이 매우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서울대 : 예체능 교과는 원점수 70점 이상은 만점이고 70점 미만은 차등 감점한다.

연세대 : 과목별 등급을 기준으로 8등급 또는 9등급인 경우에 한하여 등급 반영 점수를 최대 5점(교과영역 100점 기준)까지 감점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적용되는 고등학생들에게 음악 내신 1, 2등급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학기초 학생들에게 “8, 9등급만 나오지 않게 공부하자”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입시과목이 아니기에 크게 성적에 목을 매지 않는다. 하지만 평가를 통해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는 실기 발표시 필요한 최소한의 긴장 부여와 학생 변별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고입의 경우 전과목 석차 백분율에 의해 성적이 산출되며 특수목적고등학

교의 경우 과학고등학교는 예체능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할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 등에 가중치를 두어 그 비중을 달리한다.

이번 평가방식 개선이 학생들의 지나친 경쟁 의식을 누그러뜨리고 서열화를 순화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는 전체 교육체제에 대한 시각에서 필요한 것이지 예체능과목에 국한시켜 논의될 사항이 아닌 것이다.

위의 내용들과 우리의 수업을 떠올려보더라도 어느 교과보다도 다양한 모둠활동과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며 교과의 교육적인 측면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음악 과목이다. 입시에서 한걸음 떨어져 잠시나마 여유를 지닐 수 있는 과목이다.

입시라는 족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교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내용과 재미로 짜여진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음악교사로서 당연하다. 평가여부와 상관없이 좋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음악교사는 많을 것이다. 아마도 교과의 내용적인 측면보다 학생들의 흥미를 중심으로 교과내용이 결정되어질 것이다. 입시 앞에서 무력한 아이들은 수능과 관련된 주요 과목에 더욱 매진하며 음악시간 중 자신의 관심과 다른 주제가 다루어질 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Ⅲ. 평가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1. 객관성 부족(양적측정의 어려움, 타고난 능력의 평가, 우연성 작용)이 극복될 것인가?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표현력은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있다. 노래 부르다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고 한다. '너무 떨려 친구들 앞에만 서면 가슴이 쿵닥쿵닥!', 선생님 실수 했어야 재시험 가

능한가요? 제가 노래를 다 외웠는데 선생님 앞에 서니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잠겼어요. 손을 다쳐 장구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음치예요.’ 평가 객관성과 관련된 소리들이다.

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다. 음악, 미술, 체육의 기초 능력을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 되겠지만 이는 평가도구의 문제이다.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콩쿨이나 입시에서 음악 능력이 수치화 되고 있다. 음악적 능력의 차이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치화하는 것은 적절한 피드백과 학생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단 음악적 능력의 차이를 어떻게 수치화 해야하는가는 올바른 근거와 합리성을 지닌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근소한 차이의 음악적 능력이 수치화로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사실상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아마추어 수준의 실기능력을 평가받는 것이고 교양으로서 실기능력을 연마하기에 수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실기능력이기에 급간 차이를 크게 두지 않으며 기본 점수제를 통해 일정 점수의 폭을 유지하고 있다.

평가전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치화되는 양적 측정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해야 한다. 실기 시험의 경우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채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민원이 들어온다. 보통의 경우 정상적인 교사는 학생들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의 채점을 한다.

또 다른 의견, 음악교과는 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 객관적이지 않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음악교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해 영역을 고르게 수업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아이들에 따라 노래를 잘 하기도 하고 악기를 잘 다루기도 하고 이해영역에서 뛰어난 아이들도 있다. 음악의 모든 영역에서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전교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 뿐이다. 평가영역의 다양화는 다양한 음악 재능을 수용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여러 음악 영역에서 다양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은 수업시간 중 활동에 대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동기 유발도 쉽다. 하지만 수업은 이런 학생들을 준거집단으로 하지 않는다.

평가의 내용이 타고난 능력에 영향을 받는 기능적인 면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시간에 노력하고 꾸준히 준비했는가에 초점이 맞춰 지고 있다.

본교의 경우 1학년 15개 학급 570명 정도의 학생이 음악수업을 받고 있다. 해마다 음악적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과 음치들이 각 10명 전후로 나타나는 듯 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능력과 노력 여부에 따라 중간 성적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남다른 음악적 능력을 보이는 학생은 보통 표현력이 뛰어나다. 대다수 학생들에게 타고난 음악적 능력이 교과평가의 영향을 준다면 이점은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실제로 그 비중은 매우 작다. 그리고 이 관점은 각 교과마다 나타날 수 있는 학생들의 개성 중 예술 교과의 우수학생을 인정하지 않는 시각을 갖고 있다.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거나 수리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예술교과에서 뒤쳐질 수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기평가가 갖는 우연성이 객관성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우연성은 모든 실기 관련 종목에서 나타나는 요소로 실기시험 중 실수를 한다던지 시험 보는 날 갑자기 아프게 되는 상황들과 연결된다. 시험을 보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몇 학생들이 하는 말 “재시험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재시험은 안 된다. 음악 공연은 공연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우연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연주 능력이 중요하다. 연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공부이고 중요한 능력인지를 긴장이나 당황함에서 오는 실수와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 생기는 실수는 차이가 있다. 시험을 보다보면 안타까운 실수로 감점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 하지만 평가는 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엄연히 평가요소와 기준에 의해 진행되며 잠깐의 실수와 준비부족에 의한 실수는 감점의 폭이 다르다. 본인의 경우 많은 아이들이 1-2번의 실수를 하기에 1번의 실수는 감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시험 당시 아프거나 결석이나 조퇴로 시험을 보지 못하면 추후 따로 불러 시험을 보게 한다. 간혹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음악 시험 보러 가라고 꼭 전해 주세요’라고 담임선생님께 부탁하거나 점수 입력 마감일까지 그 아이를 계속 쫓아 다녀야 한다. 시험일에 우연적으로 생긴 상황을 교사의 융통성으로 처리하는 예가 아닌가?

2. 3등급 절대 평가 제도, 올바른 기준인가?

현재 중학교는 5등급 절대평가가 고등학교는 9등급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3등급 절대 평가로 바뀐다. 여기에 등급의 의미를 보완할 수 있는 서술형 기재 내용이 강화된다. 3등급은 ‘우수’ 100~80점, ‘보통’ 79~60점, ‘미흡’ 59이하 로 급간 간격이 20점이다.

교육개발원 보고서(2007)에는 ‘등급 부여를 교사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교사의 평가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등급 부여에 교사의 자율성을 허용함으로써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한다’란 설명이 나온다.

현재 학교에는 생활기록부상의 변화만이 간단한 공문으로 전달되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될때 구체적인 평가안이 내려올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보면 교사가 등급을 부여하여 이것이 점수로 환산되는 것인지, 점수를 부여하여 등급으로 환산하는 것인지가 애매하다.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된 내용을 보면 후자가 맞는 것 같고 교육개발원 보고서에 의하면 전자가 맞는 것 같다.

어떤 것이 맞든 현장에서는 최종등급 판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등급별로 수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학기에 3가지 영역의 실기 평가가 있고 각 영역의 비중이 다르다면 수치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등급을 부여하더라도 각 등급별 기준 점수가 정해져 있을 것이다. 이론시험이 있다면 합산을 위해서 더더욱 필요하다. 이런 수치화가 요구된다면 교사의 평가업무 간소화는 실효성이 없다.

각 영역을 모두 동일 비중으로 처리한다면 완전한 등급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이는 수업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의 비중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며 제한된 등급으로 인하여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등급 수를 획일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이론 영역의 지필식 평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이렇게 급간 간격이 벌어진다면 학생을 변별할 수도 없으며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할 수도 없다.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개인차를 확인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이다. 평가결과가 의미 있는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개 이상의 등급이 필요하다.

요즘 아이들, 강요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논리는 받아들인다. 평가에서도 논리가 필요하며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는 평가를 원한다. 3등급 평가는 급간 간격이 너무 커 학생들에게 제대로 평가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의미 없는 등급 사이에서 교사가 어떻게 ‘미흡’이란 등급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학생들은 지필고사에서 10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옆에 있는 친구와 실기시험에서의 생기는 몇 점 차이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 학생들이 ‘미흡’이란 평가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옆 친구는 ‘우수’이고 자신은 ‘보통’이란 평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3등급 평가는 입시자료에서 완전한 배제를 뜻한다. 학생 변별에 의미 없는 자료를 해당기관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9등급 상대평가는 학생 선발에 효과적인 평가도구이기에 이 평가방식이 예체능 평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부 대학과 고등학교들은 주어진 평가 자료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학생평가에 사용하고 있었다. 평가결과는 이같이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입시의 내신 반영 여부를 떠나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를 먼저 제시할 수 있는가가 평가의 유용성을 결정한다. 3등급의 평가는 그런 유용성을 제시할 수 없다.

IV. 학생 입장에서서의 변화

1. 학생의 학습 부담감이 감소되는가?

음악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애매한 교과가 될 것이고 입시에 대

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수업시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3등급 절대 평가를 위해서 평가는 진행될 것이다.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평가 결과를 위해 준비를 하기도, 하지도 않을 수 없는 애매한 교실 상황이 만들어 질 것이다. 당연히 지금 보다 평가 상황은 줄어 들 것이다. 신뢰도를 지닌 평가결과를 줄 수 없기에 교사도 평가에 대해 느슨해 질 것이며 학생들도 간단하고 쉬운 평가 방식을 요구할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평가는 학생들을 경직시키고 평가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하지만 적절한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집중력을 일깨울 수 있다. 이 적절한 평가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며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를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수업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사실상 대학입시에서 음악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는 매우 소수이다. 평가를 통해 성취도가 기록으로 남겨진다는 사실 만으로도 의미있는 평가가 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미약하나마 반영되었던 예체능 교과목의 내신은 신뢰할 수 없는 평가결과에 의해 대학입시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예체능 교과목이 조금이나마 나누어 들었던 서열 기능이 다른 교과목으로 실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적은 비중이나마 예체능 과목을 인정하고 그 과목들에 들었던 모든 시간이 입시과목으로 돌려질 것이다. 교과에 대한 부담은 더 커져 학생들의 입시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2.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가?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견해였다. 왜 예체능 교육과 사교육비 문제가 맞물리는가? 이 평가안이 시행될 경우 일정 정도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연구자의 의도한 바가 아닐런지?

중고등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는 국어, 영어, 수학, 논술 같은 입시 관련 과목의 수강비이다. 예체능 과목은 내신 성적을 올리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취미활동과 관심으로 이루어진다. 고등학생 중 내신 성적을 위해 예체

능 과외를 찾아보기 어렵다. 강남 일부 부유층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체능 과외가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수는 매우 적다.

수시로 각종 언론과 방송에서 문제시하는 사교육비 문제는 예체능 과목이 아니라 다른 주지교과 과외에서 생겨난 것이다. 예체능 사교육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인성, 감성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은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그나마 고등학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초등학교의 경우 예체능 사교육을 받게 되면 해당 학원에서 특강 등의 형태로 학교의 음악수업과 관련된 리코오더, 단소를 부수적으로 지도하는 경우가 있다. 체육의 경우 사회체육의 개념이 상당히 발전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팀으로 기초 운동기능, 기타 운동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부수적으로 학교수업과 관련된 내용, 기초기능이 겹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내신 대비 사교육인가? 이 사교육의 시작은 개인의 흥미, 교양, 건강 등의 이유가 우선이고 부수적으로 학교 수업에 약간의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3년도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교육 절감 차원의 예체능 내신제외 방침의 전례를 들어 의도적인 조치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교육개발원의 보고서에 인용된 설문지의 경우 사교육 관련 설문이 '중고등 학생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이 대상자가 '현재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바뀌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질문은 '평가기록방식에서 등급 조정으로 서열화가 완화되는 경우에도 체육·음악·미술 교과 사교육을 계속 받도록 하시겠습니까?'로 입장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요 대상자 집단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질문에 28.6%에서 50.0%(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가 사교육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여기서 '사교육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겠다'는 결론이 만들어진다. 중고등학교에서 예체능 과외를 받는 학생이 어느 정도의 비중이기에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일까? 실제 예체능 사교육을 중단시키겠다고 답변한 집단의 수가 궁금하며 설문과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난감할 뿐이다.

3.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과 의미 있는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가?

지난 학기에 2학년 체육시간 중 댄스 스포츠 ‘자이브’ 수업이 있었다. 평가 항목에 포함된 내용이었고 학생, 교사가 모두 즐겁게 참여한 수업이었다. 기말고사 후 담당 교사는 두 명씩 파트너를 지어 주고 파티형식으로 진행시키고자 했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이었다.

고등학교 과정 안에 개설되어 있는 ‘창의적 재량’이란 수업이 있는데 이 교과는 부분적인 서술형 평가만 가능하다. 이 수업에서 평가가 약화된 수업의 어려움을 보게 된다. 본교의 경우 창의적 재량을 맡으신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3분의 선생님이 성교육, 보건·위생 교육, 정보와 도서관이란 주제로 수업을 진행 한다. 매우 유익한 내용의 수업임에도 학생들의 수업준비는 항상 허술했다. 보다 못해 3분이 교재를 자체 제작하였다. 창의적 재량을 맡게 되면 교사는 괴롭다. 아이들은 새로운 수업 준비를 위해 에너지는 배로 쓰게 되고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시험이 다가도면 왠지 자습을 시켜 줘야 할 것 같고 아이들은 시선으로 압박을 가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단순히 학기말이기에 긴장이 떨어지는 것인가? 평소 수업시간에 잘 참여했던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창의적 재량’수업의 어려움은 어디서 기인하는가?

아이들은 피곤하다. 의욕이 있으나 현실적인 도움, 수업 평가에 의한 피드백이 없는 수업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수업 진행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학교들이 많다. 이는 평가에 의해 주도되는 학교의 단편을 나타내는 예일 뿐이다. ‘창의적 재량’의 어려움이 곧 음악 수업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평가안이 시행되면 교육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사항이 학생들의 흥미가 될 것이다. 개정 평가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소재 발굴이 필요하고 수업의 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교육

내용을 다양화 하는 것에는 도움을 줄 것이지만 새로운 교육내용은 시작할 때만 흥미를 끌고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학생들의 흥미는 수업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흥미를 내실화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그 흥미는 사그라질 것이다.

기악수업으로 작년에는 ‘사물놀이’를, 올해 처음으로 ‘기타’ 수업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흥미도는 작년이나 올해나 매우 높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흥미롭지는 않을 것이다. 수업을 하다보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부분을 넘어서기 위한 연습과 집중이 필요하다. 즐거운 음악시간이니 ‘그냥 넘어가자’ 이럴 수는 없다. 다음 단계를 위한 수행과제가 필요하다. 이 수행과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흥미는 낮아진다. 평가가 약화되면 필요한 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수업준비는 교사위주로 진행될 것이다. 모 남학교의 미술시간에 학생들이 미술실기 시험에 필요한 종이를 준비하지 않아 교사가 준비해 나눠주고 시험을 보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털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당연히 과제를 주어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음악활동을 위해 ‘집에 있는 리코오더를 준비하자, 오선공책을 준비하자. 난타에 필요한 패트병을 가져와라’는 공지는 이제 옛말이 될 것이다. 입시에 바쁜 학생들을 위해 모든 수업준비는 교사의 몫이 될 것이다.

자신이 노력하여 음악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은 그 노력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기타 다른 과목 성적은 떨어지고 음악에서만 좋은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은 어떤 과목에서도 두드러질 수 없는 아이들이 되버릴 것이다.

모듬활동으로 이뤄 졌던 음악활동이나 합창대회 같은 음악과 관련 행사들의 준비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수행평가가 처음 학교에 도입되었을 때 교사나 학생 모두 일정한 과도기가 있었다. 초창기에는 학생들의 과제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 현재에는 수행평가의 양과 수준이 적절하게 조절되어 현장에 맞게 안정화된 느낌이다. 음악과는 실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실기시험이 수행평가가 될 경우가 많다. 너무 바쁜 아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일부러 쪼개야만 모듬활동을 할 수 있다. 다른 교과에서 하기

힘든 모듬활동을 그나마 음악시간에, 수행평가 준비란 명목하에 참여해 왔다. 우리 학교에는 학기별로 1회, 연간 총 2회의 모듬별 활동이 있고 평가를 실시한다. 가능한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심시간에 모여 연습할 수 있을 정도의 과제를 부여한다. 올해의 경우 1학기에는 반가 발표(노래와 신체표현) 2학기에는 그림자 뮤지컬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에는 아이들의 스케줄이 모두 다르고 바쁘기 때문에 주말에 1번 정도 모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준비한다. 평가안이 시행된다면 모듬활동은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다. 모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협동심과 함께 하는 음악활동의 즐거움을 잃게 될 것이다.

해가 갈수록 아이들은 함께 하는 활동보다 개인적인 활동을 선호한다. 시대적인 흐름인듯하다. 여러 학교들에서 실시하는 합창대회도 점점 준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안은 음악과목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교과목의 중요도가 떨어지면 관련 행사의 중요도도 떨어진다. 합창대회는 더 줄어들 것이다.

V. 교사 입장에서의 변화

1. 교사의 평가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 도구인가?

새 평가안은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고 평가업무를 간소화시킨다고 한다.

학생들을 ‘우수’, ‘보통’, ‘미흡’이란 판정을 교사가 학기말에 한번 정해버릴 수는 없다.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평가업무는 현재와 달라지지 않는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그동안 해왔던 평가업무는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보완책으로 나온 서술형 평가는 지금도 실시하고 있다. 교과목 우수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교과담당 교사 재량으로 우수사항을 기재해주게 되어 있다. 현재는 구체적인 학생의 성취결과가 기재된 상태에서 특정학생에게 서술형 기재가 첨가되는 형식이지만 3등급 평가에서

는 등급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학생에게 서술형 평가가 기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학교 1학년 학생 수는 대략 570명이다. 15개 학급, 1학급당 38명 정도의 학생이 배정되어 있다. 이들 학생에게 모두 서술형 평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중 특정 학생에게만 서술형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꾸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과연 가능할까? 한 학년 전체에게 2도막 악곡을 창작하게 한 적이 있다. 그 창작곡을 살피는데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고 꼬박 1주일이 걸렸다.

새 평가안은 결코 평가업무를 간소화 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하지도 못한다. 교사의 평가권은 학생들에게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때, 교사의 명쾌한 판단에서 강화된다. 이 안은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짐으로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쌓아왔던 평가의 기술 역시 사장될 것이다. 음악교육, 예술교육 전반의 후퇴를 의미한다.

2. 학교에서의 교과 소외 현상

미약하게나마 갖고 있던 변별의 기능이 약화되고 입시에 필요한 서열화 기능이 다른 교과에 넘겨주면 현재의 학교 구조상 교과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음악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입시라는 강력한 제도 앞에서는 교육적 기능보다 입시 주요과목이 우선시된다. 입시 준비에 시간 투자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있고 그들은 음악시간을 자습 시간화 할 수 있다.

현재의 학교 체제는 평가에 의해 영향 받는 부분이 크다. 여러 행정 업무, 학사 일정이 평가를 중심으로 짜여 진다. 평가에서 소외된 음악교사는 학교 행정을 전반적으로 살피기 어려워진다. 아마도 담임업무에서도 배제되기 쉬울 것이다.

이런 교과소외현상은 추후 교육과정의 교과소외와도 연결된다.

VI. 재정투자와 고 2·3학년 음악교과 신설. 음악교과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인가?

평가의 변화와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이 예술교과 이수 시간 및 선택 기회 확대와 재정투자이다.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느낌을 준다. 이 두가지 해법이 평가안과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새 평가안에 의해, 실용주의 사고 아래, 예체능 교과에 대한 기본 철학이 흔들리고 있다.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가지만을 치료하는 격이다.

평가가 바뀌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000억원의 돈을 5개년간 투자한다고 한다. 교직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받아 보지 못한 예산이다. 각종 학교의 예체능 교과로 분산된다면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학교당 900만원 정도, 음·미·체가 나눈다면 각 300만원) 분명 필요한 예산이다. 하지만 학교 예체능 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변화 없이 내려오는 예산은 일시적인 미봉책이 될 수 있다. 이 투자가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효과가 없다. 꾸준한 교육여건의 필요가 제시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5개년간 300만원이 내려온다면 한 해 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다. 이것으로 예체능 교육여건이 개선되지는 못할 것이다.

고등학교 2년으로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 입시관련 과목으로 짜여지는 교육과정을 보며 예술교과 편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학생들이 여유를 갖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교과가 신설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는 모든 수업이 수능준비로 집중된다. 제대로 된 음악수업이 가능할까? 원론적으로는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다.

VII. 제 언

이 평가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음악교육계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느껴지는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입시 제도의 개선이다. 해법이 쉽지 않다. 현재의 경쟁 구조가 완화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희망사항이다.

둘째, 현 9등급 상대평가제도의 지속 또는 5~7단계 절대 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변별력을 지니고 교육적 의미 해석이 가능한 평가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예체능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현실적인 교육투자가 요구된다. 예체능 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사회의 문화적 욕구와 역량은 성장했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문화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예술 교육의 필요와 요구가 제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교과에서 필요한 교재, 교구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요구된다. 음악 교과의 특성상 학생 욕구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음악관련 기자재 및 악기의 구비가 수업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얼마전까지도 음악실의 주요 기자재는 피아노였다. 학교 기자재 구입 시 마지막 순위가 되는 것이 음악, 미술 과목이다.

넷째, 적용하기 쉽고 다양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는 음악교육계의 학문적 성과와 음악교사의 개발 노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다섯째, 음악 교사 연수의 실제화가 필요하다. 국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한 교사 교육과정을 짜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업 주제 및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예술 교과에서 중요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 개발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교사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교육청 주최의 음악 연수는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 많고 다양하지 못하다. 음악교사의 역량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훌륭한 음악교사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VIII. 마치며

우리는 교육을 통해 따뜻한 마음, 바른 판단력, 지적인 호기심, 감수성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능력을 키워내고자 한다. 이 대전제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은 눈앞의 실리만을 쫓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싶었던 능력들은 감춰지고 지적인 성취만이 교육의 결과물이 되고 있다.

새 예체능 평가안이 이런 현실을 개혁한다고 하지만 지식의 실용주의만을 더 키울 것이다. 아이들의 감성은 황폐화될 것이다.

교육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